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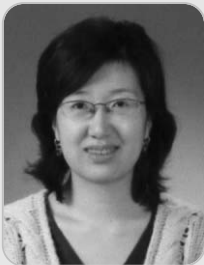
## 도서관 입장에서의 도서정보에 대한 제언

### 들어가며

도서정보 제공 서비스는 말 그대로 도서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 사서가 직접 안내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스스로 제공된 도서정보만으로 자료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자료인지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도서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존의 공공도서관보다 도서를 판매하는 대형 인터넷 서점이나 출판사를 중심으로 더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도서정보들은 인터넷 대형서점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도서정보 콘텐츠나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더 나은 도서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기존의 대형서점이나 출판업계의 콘텐츠를 참조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창조하고 개발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박 미 영

노원정보/어린이도서관관장  
ollive@sookmyung.ac.kr

이미 몇 개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작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전개되리라 예상한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도서정보 제공 현황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정보 제공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A도서관은 도서정보 서비스가 '이달의 추천도서' 형태로 기존 인터넷 대형서적이나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인용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용자 추천도서'를 통해 서로 도서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B도서관은 도서정보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주제별 도서 찾기가 세분화 되어 있어서 부족한 도서정보 서비스를 보완해주고 있다.

C도서관은 '권장도서 서비스'가 구체화되어 있고 이용자가 직접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어 도서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D도서관은 도서정보 서비스인 '이달의 추천도서'가 있으나 기존 인터넷 대형서적이나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인용한 수준이다. 자관에서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도서관은 추천자료의 형식에 이용 대상을 기입(예:〈임산부 추천도서〉〈4~7세 추천도서〉 등)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추천자료의 형식에 나열된 이용대상별 도서 정보를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보다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F도서관은 신간 추천 리스트는 간단한 책 소개가 전부이다. 최다 대출 도서는 서명, 저자, 이미지만 소개하고 있다. 향후 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G도서관은 외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책소개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영상 책 소개 콘텐츠 다양성이 필요하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H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정보 서비스는 추천/인기/신착 도서, 테마와 함께 떠나는 도서여행, 지식충전소(지식채널/지식IN LIFE/지식 바이러스), Another Today

Another Culture이다. 기존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추천도서나 신착도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 도서관은 그 접근점을 다양하게 가져감으로써 이용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제공한다. 특히 테마도서와 특화된 도서정보 서비스는 특정 계층의 이용자나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접근점이 다양한 만큼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주제로 선정해야 한다. 콘텐츠의 주제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이용자와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아무리 훌륭한 도서정보 서비스라 해도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접근이어야 한다.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까지 활용하는 서비스라면 독자에 대한 흥미를 배로 증폭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보다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아무리 다양한 도서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접근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그것은 죽은 서비스와 같다. 따라서 양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 하나의 주제라도 질적으로 이용자에게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 끝맺는 말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도서정보 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차 각 도서관에서 구체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화되고 직접적인 도서정보 서비스를 개발해 가고 또한 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투자도 여건다면 공공성을 증시하는 도서정보의 제공은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도서관은 분명 도서정보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공공적인 성격이 띠는 도서정보 제공측면에서 신간도서 및 구간 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도 해야 하지만 좋은 책을 가려내는 서평활동도 필요하다. 즉 이제 우리 사서들이 필요한 도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적극적인 도서안내와 도서평가가 필요하다. (2007)